

1. 교환학생 현지대학 신청서 작성(0.5장~1장)

- ①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제출한) 서류
- ②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작성
- ③ 준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

우선, 해당 대학교에 제가 교환학생으로 지명되면 지명됐다는 메일이 와요. 지명이 되자마자 IULM 학교 학생 등록 홈페이지에 제 신상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건 신입생 등록 절차예요.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교에서 알려주고 제 여권사진, 신분증, 여권 정보, 영어 점수, 개인 건강보험 순서대로 pdf파일을 업로드 해야 돼요. 이 절차를 마쳤다면 학교에서 완료되었다고 메일로 알려줍니다. 그럼 합격통지서를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건강보험 제출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보험은 비자 발급받을 때 제출할 현지건강보험이 아니라 그냥 주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는 국민건강보험 증서예요. 저는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고 스캔해서 제출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오류가 생기는 걸 알아서 보험을 잘못 제출해도 다시 알려줍니다.

학교에 신상을 등록했으면 이제 이탈리아 대학에 외국인 학생으로 등록하기 위해 UNIVERSITALY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국제 학생이 이탈리아 비자 신청이나 사전 등록을 위해 꼭 걸쳐야 하는 절차이고 나중에 비자 발급받을 때 중요한 서류가 돼요. 신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 건데 기본적인 정보와 사는 곳, 세금코드,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과목 등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요소까지 입력해야 돼요. 이건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상했을 때 이럴 것 같다 싶은 부분이면 그냥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 세금코드는 IULM대학에서 저희에게 미리 줍니다. UNIVERSITALY가 정상적으로 제출됐다면 완료 메일이 올 거예요. 지금까지 이 두 개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등록 과정의 거의 전부인데 IULM학교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히 메일로 다 알려줘서 어렵지 않게 등록했어요. 이 과정을 마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탈리아에 거주할 기숙사 신청과 비자, 항공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신청 양식 작성에서 모르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다 영어로 작성해야 되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신상 요소를 알아내야 했거든요, 제 팁은 꼭 Chat GPT 를 쓰세요.. 그 친구가 다 알려줍니다. AI랑 같이 하면 정말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Congratulations!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 have been nominated as an Erasmus+ student at IULM for the first semester of the academic year 2025-2026.

We are already looking forward to welcoming you in February 2026.

Please read the information below carefully to complete the application process.

APPLICATION PROCESS

You can submit your applications from **October 13th (10.00 a.m. CEST) to October 31st, 2025 (5.00 p.m. CEST).**

Before starting to fill in the Application form, make sure you prepare and then upload the following documents:

- 1) **JPEG photo (ID/Passport format)** à Please note that the photo format should be 35 x 40mm. Possibly, the photo should show your face on a white background. Photos with a different format will be eliminated (max 60 MB).
- 2) **PDF of ID card (EU students) or Passport (extra-EU students)** à Please scan your document front and back on one page.
- 3) **영어 학술 기록 PDF** (공식 기록 사본) à 이것은 어학 자격증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 대학에서 치른 모든 시험을 보여주는 문서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PDF of European Health Card (EU students) or a private Health Insurance (extra-EU students)** à If you haven't received the health insurance yet, fill in the document you find attached in this email with your name and surname and upload it in PDF format, so you can upload it.



2. 비자 및 항공 (0.5~1장)

① 파견국가 비자 취득 방법 ② 비자 취득에 걸리는 시간 ③ 비자 취득 시 유의사항

우선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홈페이지에 비자 신청서가 있는데 그거 프린트해 작성하고 비자 인터뷰할 때 가져가면 돼요. 비자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해당하는 건 유학비자 D유형인 걸 알 수 있어요. 서류가 총 3-4장인데 그걸 다 작성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작성할 부분은 많지 않아요. 기본 신상 정보와 비자 유형, 가게 될 도시 이름과 체류기간, 파견 대학 정보와 주소, 학과, 등등 university에서 적었던 것과 비슷해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정말 적극 활용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교환학생 비자'만 쳐도 비자 신청서에 어떤 부분을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주거든요, 그거 그대로 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에요. 비자 인터뷰할 때 제출할 서류를 10개 이상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잘 준비하면 비자 인터뷰에서 문제없이 통과돼요. 마찬가지로 주한이탈리아 대사관 홈페이지에 비자 유형 별로 구비해야 될 서류 종류가 다 나와있어요. 우리는 유학비자, 장기비자에 해당하고 해당 부분 읽어서 준비할 서류들을 확인해주세요. 기본적인 신분증 앞 뒷면, 여권 얼굴 나온 부분과 사인 있는 부분,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여권, 항공권 왕복 영수증, 학교 acceptance letter, 거주 증명서(기숙사이면 기숙사 거주 증명), 통장 사본,

보호자 통장 거래내역 증명서, University 등록증명서, 현지 보험가입 증명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서류는 꼭 종이로 출력해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비자 구비 서류 요건에 보호자 재정에 관한 부분이 자세히 안 나와있어서 저는 블로그에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 갔는지 다 확인했어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요구된 게 달라서 저는 안전하게 아버지의 신상 정보와 카드 거래내역까지 다 뽑아갔더니 안전하게 통과됐어요. 그리고 영문 주민등록 등본은 출력되는 데 하루가 걸리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제 서류 준비와 동시에 비자 인터뷰 날짜를 홈페이지에서 잡아야 돼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면접 날짜를 정할 수 있고 저는 11월에 잡아서 했어요. 안전하게 하고 싶은 분은 3개월 전부터 해도 되고 정말 마지노선으로 1개월 전까지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뷰하러 갔을 때 부족한 서류가 있거나 추가 서류를 가져오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한 번에 끝내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 다 읽어보고 걸릴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다 준비해 가세요. 보호자 재정증명 같은 것들이요. 저는 보호자 재정지원 서약서도 작성해서 가져갔어요. 제 비자 준비는 10월에 시작해서 11월 25일에 인터뷰를 마쳤고 12월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총 3개월 걸렸네요.



3. 수업 정보 (1장)

① 수강 과목, 수업 내용 ② 수업의 분위기 ③ 수업강도 및 어학 능력 요구도

IULM대학은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대학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종합대학은 아니예요. 문화와 관광, 언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주됩니다. 언어과목은 이탈리아어 어학 점수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탈리아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강 제한이 있어요. 학교에서 미리 해당 학기에 열리는 수업 카탈로그를 주는데 그 중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들만 골라 보시면 돼요. 저는 <이벤트 경영과 스폰서십>, <광고>, <소비사회학>, <문화유산, 이벤트, 문화관광> 과목을 영어로 수강했어요. 한림대는 한 과목에 기본 3학점인데 여기는 기본이 6학점이고 석사 수업은 9학점이에요. 그리고 석사 1학년 수업까지도 수강 가능해요.

수업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확실히 한국의 수업 분위기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니는 동안 재밌었어요.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필기에 집중하지 않길 바랐어요. 듣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듣는 것에 집중해야 깊은 사고과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저도 녹음기만 켜 놓고 수업에 온전히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80%정도는 들렸어요. 오히려 필기에 집착하면 정신이 산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이어서 수업 중간에 질문도 많이 해요. 교수님이 말하신 부분이 이해 안 가거나 개념이 헷갈리면 손 들고 적극적으로 질문해요. 그래서 수업 현장에 있으면 내가 배움의 과정에 있구나 싶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전반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하고 싶어하셔서 모든 수업에서 팀 과제가 있었고 질문받는 시간이 길었어요. 외국인 친구들과 매 수업마다 영어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쳇바퀴 도는 수업 과정에 질렸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께 이런 부분에서 해외 수학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토익 점수에 맞춰 갔는데 800점 대면 리스닝에 문제가 없어요. 수업 내용의 80%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을 대비해서 수업을 전부 녹음했고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들으면서 복습했어요. 다만 어려웠던 부분은 이탈리아인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이탈리아인이 하는 영어 발음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이탈리아는 또 억양이 세서 영어를 할 때 약간 사투리를 하는 느낌이에요. 영국에서 일하신 교수님 수업은 잘 들렸는데 나머지 이탈리아 교수님들의 발음은 이해가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따라서 녹음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수업이 한 번에 3시간이에요.. 처음에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어요. 한국은 한 시간 반씩 한 주에 두 번 수업하잖아요. 여기는 한 과목을 일주일에 딱 한 번 듣지만 총 3시간 진행돼요. 수업시간만 따지면 같은 거죠. 근데 중간에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쉴 틈은 있어요. 한 시간 반 진행하고 15분 쉬고 다시 한 시간 정도 수업한답니다. 놀랍게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교환학생을 여행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행 보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경험을 위해 왔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시간은 저에게 너무 값지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적극적인 친구들, 발표에 욕심이 많은 학생들, 학생들과 1:1로 소통하며 수업하시는 교수님들, 이런 환경에 놓이니 저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배운 걸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변화된 부분이죠. 그리고 영어 실력도 늘면서 앞으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까지 생겼어요. 교환학생을 오지 않았다면 이런 터닝 포인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공부와 배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정말 교환학생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4. 캠퍼스 생활 정보 (1~2장)

①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의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 및 서비스, ② 필드트립, 학생 활동 등 참여한 활동 정보.

③ 식당, 쇼핑, 주변 관광 등 학교 인근 지역 정보

밀라노는 집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학 기숙사 경쟁률이 높아요. 기숙사는 Santander와 Cascina Moncucco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산탄데르 기숙사자 자리가 있다는 메일을 받자마자 신청해서 다행히 들어 갔어요. 모든 기숙사가 무조건 더블룸이라 한 명과 같이 살아야 돼요. 기숙사는 매우 넓고 두 침대가 널찍이 떨어져 있어서 개인 생활하기 좋아요. 그리고 방마다 냉장고와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편했어요. 제가 거주한 산탄데르 기숙사는 1층에 기숙사 카페가 있어서 간단한 빵과 커피, 음료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숙사 건물 1층에 커뮤니티 존이 있는데 거기서 TV를 볼 수 있고 탁구나 축구 게임도 모여서 많이 했어요. 옆 방에는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IULM은 학교 캠퍼스가 크진 않은데 건물이 현대적이고 깔끔해요. 언뜻 보면 회사 건물 같아요. 강의실도 넓고 깨끗해서 대학 강의실 느낌이 났죠. 본관에 교내 카페와 도서관이 밀집되어 있는데 교내 커피가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맛이 최고예요. 여름에는 카페

에서 젤라또도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어요. 도서관은 총 3층으로 구성됐는데 열린 통 창 공간, 독서실 공간,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공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테마가 다양해서 매일 다르게 공부하는 맛이 있었어요.

IULM대학의 가장 좋은 점은 학교에서 하는 이벤트나 행사가 많은 거예요. 스포츠 데이에는 학교 앞 잔디에 코트 치고 배구하며 술을 마실 수 있었는데 봄에 진행된 행사라 다들 생동감 있게 즐겼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본관 입구에 피아노를 설치해서 연주자들이 피아노 연주를 들려줬어요. 여러 학생들이 오가며 그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시험 기간이라 정신없는 와중에 낭만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름에 학교 잔디에 젤라또 트럭과 피자 트럭을 설치해 학생들이 잔디 밭에서 피자를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IULM대학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강연이 많아요. 아무나 가서 들을 수 있으니 견문을 넓히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지 않았지만 학교에 프롬 파티가 있어요. 학기 마지막 즈음에 학생들이 옷을 차려 입고 학교 야외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게임 문화에 관한 페스티벌도 열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산에 관한 전시와 워크숍이 열렸어요. 저도 전시에 참여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실제 스케치 몇 점을 봤어요.

그리고 수업에서 하는 필드 트립들이 있어요. 어떤 수업을 듣는 지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문화관광 수업에서 학생들과 다같이 밀라노 디자인위크에 참여했어요. 수업의 주제가 밀라노의 관광 코스 짜기였는데, 밀라노를 직접 보고 겪는 게 중요하니까 필드 트립이 필수였죠. 본인이 체험형 수업과 관광 쪽에 관심 있다면 이런 수업들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

우리 대학은 두오모에서 지하철로 15분 정도 걸리는 Romolo역에 있어요. 정말 편한 건 학교 바로 앞에 역이 있어서 어디로든 이동하기 좋아요. 로몰로는 밀라노의 남쪽이고 물가가 비싼 편도 아니라 딱 현지 느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학교 바로 앞에 에셀룽가라는 대형 마트가 있는데 밀라노 대표 마트 중 하나예요. 식재료 종류가 매우 많고 생활용품 사기도 편하거든요. 기숙사에 살거나 학교 주변 싱글룸에 거주하신다면 이 마트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핸드폰 대리점이 있는데 VODAFONE, WINDTRE등 이탈리아 통신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오면 대부분 현지 유심을 개통하거든요,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요금제 충전해주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로컬 카페, 피자 가게, 바, 타바끼, 레스토랑도 많아요. 가격은 두오모 근처에 비해 싼 편이니 커피 즐기시는 분들은 로컬 카페에 가보세요. 이탈리아 커피는 어디를 가나 맛있답니다 ㅎㅎ.

밀라노에서 교통권 끊으실 때 밀라노 ATM 월정권을 끊으세요. 신용카드로 개찰구나 버스에 찍고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번 이용할 때 2.2유로거든요. 근데 교통을 자주 이용하실 것 같으시면 ATM 앱에서 월정권을 22유로에 살 수 있어요. 한 달 간 무제한으로 밀라노 어디든 지하철, 버스를 탈 수 있으니 편하고 좋아요. 단 우리나라처럼 한 달 마다 카드에서 자동으로 돈이 충전되는 게 아니라 매달 직접 충전해야 돼요. 핸드폰 요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걸어서 꼭 가봐야 할 명소는 단연 나빌리 운하예요. 밀라노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관광하는 사람들도 나빌리는 꼭 들립니다. 학교에서 북쪽으로 걸어서 15-2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긴 강을 따라 양 옆으로 멋진 레스토랑과 카페, 서점, 젤라또 가게가 이어졌어요. 여기서 아페리티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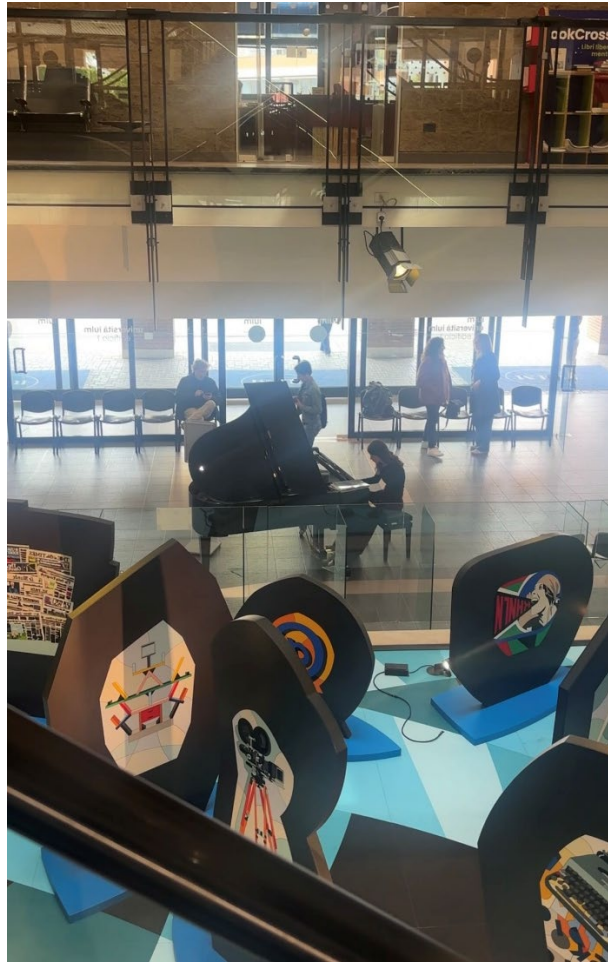
많이 해요! 아페리티보는 이탈리아 식전주 문화인데 저녁 먹기 한 시간 전, 7시 쯤에 스피리츠와 간단한 안주 곁들여서 입맛을 돋우는 거예요. 저도 밀라노 도착하자마자 한국인 친구들과 나빌리에서 아페리티보를 즐겼어요. 확실히 사람이 많고 현지인들도 즐겨 찾아서 이탈리아 문화를 낭만 있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답니다. 그리고 나빌리에서 한 달의 마지막 일요일마다 빈티지 마켓이 열려요. 나빌리 운하를 따라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볼 수 있으니까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사실 쇼핑할 만한 곳이 없어요. 빈티지 의류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나빌리에 가시면 돼요, 나빌리에 빈티지 의류, 빈티지 가방, 잡화점이 많아요. 그리고 패스트 패션이나 스파 브랜드, 아니면 전반적인 쇼핑을 하고 싶다면 두오모 근처에 가세요. 또는 Roreto라는 역 근처에 쇼핑할 곳이 많아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라고 해서 옷, 속옷, 먹을 거, spa 브랜드, 빈티지, 아시안 음식 등등 한 번 둘러서 편하게 쇼핑하기 좋습니다. 두오모처럼 북적대지 않거든요.











5. 홍보 (0.5장)

현지 학생에게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홍보 활동

IULM에서 각자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림대학교를 공식적으로 알릴 기회는 없었지만 외국인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를 소개했어요. 다들 처음에 만나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거든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다들 서울에서 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ㅎㅎ 그래서 서울은 아니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대학교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강원도가 어딘지 궁금해했어요. 외국인들이 서울이랑 부산만 알고 경기도, 강원도 이런 근교는 잘 몰라요. 그래서 강원도는 산과 강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설명했죠. 사진을 보여주니 다들 풍경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우리 학교의 메리트는 수학하기 좋은 환경과 풍경이잖아요. 그때가 welcome day였는데 50명 가량의 교환학생 친구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를 소개하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구글에 검색해서 보여주던 기억이 나요. 저도 애써 강원도를 발음하며 구글에서 강원도의 사진과 한림대 사진을 검색해 보여준 게 생각 나요. 지금 생각하면 다들 귀여웠네요.

기숙사에 거주하게 되신다면 교환학생 친구들만 모여 사는동에 배정될 거예요. 그리고 수업도 영어

로 진행되는 것만 다들 골라 들어서 다양한 나라의 교환학생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서로를 소개하며 자기가 어떤 곳에서 왔는지, 학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보세요. 친목도 생기고 새로운 주제로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6. 자기평가 (1~2장)

- ①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 ②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필요성
- ③ 파견기간 동안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해결방법

저는 사실 초반에 귀국을 고려할 만큼 생활이 힘들었어요. 이탈리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숙사 생활이 힘들었어요. 한국과 외국 애들의 생활 상식이 다르거든요. 한국은 같이 사는 방 안에서 전화할 때 나가서 하거나 조용히 하는데 외국 애들은 5시간 이상 큰 소리로 눈치 안 보고 전화해요. 첫 룸메이트는 모로코인이었는데 가족, 친구와 매일 5시간 이상 영상통화를 했어요. 화장실에서도, 옷 갈아입을 때도, 일어나자마자, 자려고 누울 때에도 크게 통화해서 저는 제 공간이 없다고 느꼈어

요. 무엇보다 제가 소리에 예민한 편인데 하루 한 시간은 참아도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룸메이트를 바꿨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는 몰타인이었는데 소음 문제는 없었지만 화장실 문을 안 닫고 사용하더라고요. 매번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보고 샤워해서 매순간 불편했어요. 자는 데도 핸드폰 소리를 켜놓고 있길래 잠 들지도 못해서 저는 그렇게 4월까지 매일 새벽 5시까지 못 자고 버티다가 결국 기숙사를 나왔어요.

이사를 하니 정말 살 만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 있는 건 '외국에 나가면 알아서 환경에 적응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가면 영어가 늘겠지, 가면 또 적응해서 살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생활 문제는 달라요. 여기 오면 본인이 어떤 부분에 예민하고 참을 수 없는 지 알게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자기 자신의 생활 패턴과 적합한 환경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숙사에 한국인 친구 한 명이 더 살았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심한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소음이나 환경에 예민하지 않아서 잘 지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생활에 있어 느끼는 게 굉장히 달라요. 만약 본인이 예민하고 사생활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기숙사 말고 근처 싱글룸을 500-600유로 대에 미리 계약하고 오세요. 예민하지 않으시면 외국인 친구랑 한 방에서 재밌게 지내는 경험도 좋아요. 저도 첫 룸메이트와 정말 재밌게 지냈거든요.

이렇게 힘들었지만 결국 교환학생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탈리아의 매력과 교환학생의 가치 때문이에요. 저는 실제로 한림대에 귀국 포기 메일을 두 번이나 보냈어요. 비행기 표도 바꾸려고 문의했는데 아예 돌아가기에는 iulm대학에서 하고 있는 공부와 프로젝트가 마음에 났었어요. 이곳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이 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줬거든요. 매일 영어로 수업 듣다 보니 정말 영어가 많이 늘었고 제가 영어로 교수님께 질문하면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수업에 그룹 프로젝트가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과 정말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알파 로메오라는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의 신차 공개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죠. 아르마니 뷰티의 마케팅 기획도 했어요. 그리고 밀라노 관광 코스를 기획해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도 했어요. 이런 내용의 프로젝트, 수업 방식, 적극적인 학생들과의 소통은 한국에서는 못 느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너무 값 졌고 제 진로의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한국에 돌아갔더라면, 여기 오지 않았다면 삶의 방향도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행을 포기하고 큰 돈을 들여 이사를 했어요. 그만큼 이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고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저녁 늦게 두오모의 야경을 구경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넓어짐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교환학생 와서 가장 크게 느낄 부분은 세상이 넓어지는 경험이라 생각해요. 오기 전에는 다들 여행가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는 걸 기대하고 와요. 근데 의외로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내가 해외에 있음을 체감합니다. 영어로 소통할 때, 이탈리아어로 주문할 때, 현지인과 바에서 스피리츠를 마실 때, 함께 젤라토를 먹으며 밀라노를 걸을 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패션 취향이 바뀔 때. 이런 건 여행과는 다른 가치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 기대하고 오든, 오고 나면 더 큰 가치를 얻어서 가실 거예요. 여기 와서 너무 힘든 일이 있다면 옆 사람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방법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할 거고 방법이 마련될 거예요.

저는 여기 대학 STUDY ABROAD 담당 선생님이 한국인이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기숙사 나갈

때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는 기숙사 측에 직접 항의 해주셔서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룸메이트를 바꾸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낸 일본인, 대만인 친구에게 제 힘듦을 털어놓으니 타지에서 혼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세요. 혼자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이 원하던 세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람들이 교환학생은 한 번 즈음 꼭 가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당연히 외국에 나가는 거니까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겪겠지, 그게 다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걸 얻었어요. 한국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사고방식, 생활패턴, 취향 이런 것의 틀이 깨지고 넓어졌어요. ‘내가 사는 곳의 방식으로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느꼈죠. 유럽이 한국과 다른 점은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와서 크게 느낀 점은 한국이 시스템화된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원하는 걸 편하게 얻을 수 있고 무인 상점이 있고 배달이 활성화되어 있고 온라인 주문을 하면 하루 안에 오고, 심지어 24시간 하는 곳이 많죠. 한국은 정말 살기 편한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배려하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정확히 공유하고 있고 그걸 모두 지켜요.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가 공유하는 생활 상식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이상해도 그걸 수용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이상하게 살아요? 라고 반문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자기 삶의 개성이 어느정도 존중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런 작은 삶의 공간이 생기면 사람은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해요. 좋아하는 것을 찾고, 자기 취향을 발전시키고, 타인의 삶도 궁금해지죠. 여기 오고 제가 그랬어요.

유럽은 지하철에서도 시끄럽게 통화해요.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모르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한국에서는 민폐가 되죠. 우리나라 공공장소는 매우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탈리아에서 처음 살 때 불편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그게 익숙해지고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사회적인 생각 구조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은 모두 구조 안에 사는 느낌이고 이탈리아는 조금 더 개인의 공간과 삶이 있다고 느꼈어요. 이탈리아 덕분에 저도 제 삶을 새롭게 꾸렸어요. 취향이 바뀌었고 일상에서 즐기는 것들도 바뀌었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전반적인 제 삶의 모양이 잡혔어요. 이것이 이탈리아에 오고 가장 큰 수확이자 기쁨입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꼭 가세요”입니다. 목적이 여행이어도 좋고 현실 도피여도 좋으니 가면 생각한 것 보다 더 값진 걸 얻어 오실 수 있어요. 교환 포기를 수없이 고민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에서 힘든 일은 무조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있고 해결하고 나면 본인 스스로도 강해지고 삶이 더 아름다운 쪽으로 흐를 거예요. 두려움 갖지 말고 교환학생 경험에 자기를 한 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타지에서 또 다른 자기 삶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 밀라노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가 생각한 이탈리아 모습 그 이상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은 느슨한 여유와 세련된 옷차림, 관능적인 도시 모습이라 생각해요. 모두가 옷을 클래식하게 잘 입어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잘 입으시죠. 한국에서 즐기던 서비스화 된 놀거리는 거의 없어요. 노래방, 게임장, 24시간 카페, 방탈출 카페 등등이요. 대신 옷을 차려 입고 나

가 젤라토를 먹으며 도시를 걷는 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놀 거리가 없어서 다들 식사를 길게 하나
싶을 정도였죠. 텅 빈 시간 위에 좋아하는 차림으로 느슨하게 술과 커피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탈리아의 감각에 만족하실 겁니다 😊





